“첫 격정 멜로 걱정돼요”

‘시청률 퀸’ 김남주 6년만에 드라마 복귀

JTBC ‘미스티’서 뉴스 앵커 혜란 役

“기다려오던 작품…시나리오에 매료돼”

“40대의 열정을 이번에 다 쏟겠습니다.”

배우 김남주(47)의 드라마 출연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내달 2일 첫 방송 하는 JTBC 새 금토극 ‘미스티’를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김남주는 3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전작이 끝난 지 2~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6년이나 됐더라”며 “너무 연기자의 길을 오래 떠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전작을 할 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중학생”이라고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스티’는 제가 정말 기다려왔던 작품이라 이 역할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시나리오에 매료됐다”고 덧붙였다.

‘미스티’는 격정 미스터리 멜로극을 표방한다.

김남주는 사회부 기자에서 출발해 9시 뉴스 앵커 자리에까지 오른 고혜란을 연기한다. 혜란은 명망 있는 법조계 집안의 외아들 강태욱(지진희 분)과 결혼하면서 모든 걸 갖춘 여성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사실은 남보다 못한 사이, ‘쇼윈도 부부’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고에 누군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혜란을 가리킨다. 세상이 순식간에 그녀로부터 등을 돌린 순간 변호사인 남편 태욱이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

김남주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성공과 완벽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저도 어렸을 때 가정이 불우했다. 고혜란을 보면서 신인 때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앵커 역할이 저와 어울린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다”며 “정말 앵커처럼 보이려고 신인 때보다도 열심히 연습했다. 방문을 닫고 완전히 몰입해 연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도 강조했다.

김남주는 또 “이렇게 ‘진한 키스신’은 이번 작품에서 처음 경험했다. 남편(배우 김승우)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웃으며 “등이 확 파인 야한 옷을 자주 입고 나오는 등 노출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남주는 이날 ‘워킹맘’으로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 한다. 배우로서도 엄마로서도 별로다”라며 “엄마 역할에 적응할 때쯤 배우로 돌아오면 헤매고, 이제 작품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엄마로서 또 헤맬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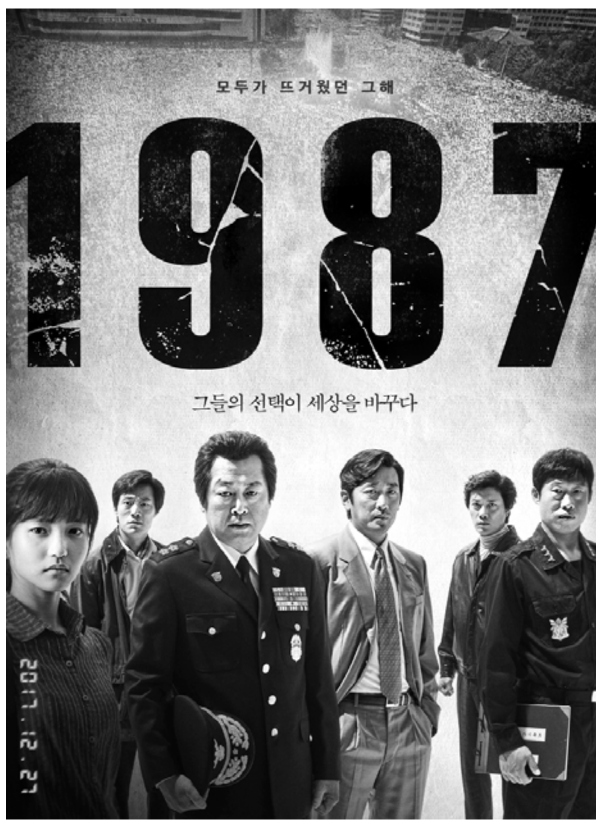
김남주와 지진희 외에도 전혜진, 임태경, 이경영, 안내상, 고준, 진기주, 전국환, 김보연 등이 출연한다. 반(半)사전제작 작품으로, 절반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2월 2일 오후 11시 첫 방송.

/연합뉴스

영화 기자들 선정 2017 최고 영화는 ‘1987’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서 작품·감독상 수상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영화담당 기자들이 선정한 2017년 최고의 작품이 됐다.

한국영화기자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에서 ‘1987’에 작품상을 수여했다. ‘1987’을 연출한 장준환(48) 감독은 감독상을 받아 ‘1987’은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 결과는 지난해 개봉한 한국영화와 외화를 대상으로 협회 소속 언론사 59곳, 기자 90명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살인자의 기억법’의 설경구(51)와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77)는 각각 남녀주연상 수상자로 뽑혔다.

남녀조연상은 ‘범죄도시’의 진선규(41)와 ‘더 킹’의 김소진(39)에게 돌아갔다.

신인남우상과 신인여우상은 ‘청년경찰’의 박서준(30)과 ‘박열’의 최희서(31)가 수상했다.

올해의 독립영화는 조현훈 감독의 ‘꿈의 제인’이, 올해의 외화로는 ‘덩케르크’가 선정됐다.

‘신과함께-죄와 벌’의 김용화(47) 감독은 올해의 영화인으로 뽑혔고, ‘범죄도시’의 윤계상(40)은 올해의 발견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위기 청소년, 자아 성찰 위해 숲으로 떠난다

EBS 다큐 ‘나를 찾아 떠나는 길’ 8일 방영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가두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사실은 악순환의 시작이다. 실제로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소년원으로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 산행과 숲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통제와 수용, 외적 강제에 치우쳤던 교정 패러다임을 ‘자아 성찰’로 전환한 것이다.

다음 달 8일부터 총 3부에 걸쳐 방송할 EBS TV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의 제작진도 외국에서 검증된 이 코스를 따라보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은 20박 21일간 산을 올랐다. 휴대전화, 게임, 음악, 인터넷 등 평소 일상을 지배하던 모든 것이 금지됐다.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을 견디고 정신과 체력의 한계를 넘나들며 하루 평균 10~15km를 걸었다.

아이들은 언제든 산행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견디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어도 산은 오르는 척으로는 오를 수 없기에 아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두 발로 걷는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은 31일 “이 프로젝트는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본 적 없던 청소년들이 마지막 한 걸음까지 제 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자아 성찰’을 목적으로 했다”며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변할 수 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2016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작인 이 다큐멘터리는 총 3부작으로 2월 8일에는 1부 ‘방황과 방향 사이’, 15일에는 2부 ‘치유의 길, 동행’, 22일에는 3부 ‘혼자 걷다’를 방송한다. 방송 시간은 사흘 모두 오후 7시 50분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UHD 한식의 마음(재)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50 UHD 한식의 마음	00 흑기사(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이웃집 찰스(재)	05 내 남자의 비밀(재)	00 12 MBC 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00 밥상 차리는 남자(재)	55 닥터 365
2	2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50 평창동계올림픽 G-10 축하쇼 하나된 열정 하나된 세계	05 생생정보 스페셜	05 똑?똑! 키즈스쿨 35 에어로버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55 하하랜드 2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겨울방학특선 생명탐사, 지구로의 여정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늘 15 터닝메카드 R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15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흑기사(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 8부작			
10	30 숨터 3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11	05 특집다큐 책이 미래다 행복한 책읽기 55 특집다큐 환경스페셜-일생	10 해피투게더	10 특집다큐 소수의견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도올스톱 30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평양 려명거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학이 야호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치킨 마리네이드와 샤부샤부 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낙타 할아버지의 선물〉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재)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수학이 야호(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거꾸로 사이언스 신기한 장소를 찾아라!〉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여기가 천국 카리브 제도 4부 커피향이 흐르는 축복의 땅〉
21:30 한국기행 〈야생의 집을 짓다 4부 겨울숲에 세들어 살아요〉
21:50 과학 다큐 비욘드 〈생명 연장의 과학, 텔로미어〉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호모 이코노미쿠스 〈돈을 공부하니 돈이 보인다〉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2월 1일(음 12월 16일 甲子)

子 **48년생** 겉보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60년생**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72년생** 운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84년생** 세밀한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망된다. 행운의 숫자 : 13, 72

丑 **49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둬도 되는 판세이다. **61년생**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73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자. **85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86

寅 **50년생** 실효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62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74년생** 사전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86년생** 시류에 편승하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5, 56

卯 **51년생** 조금만 할애하면 가볍게 조처될 수 있는 문제이다. **63년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75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87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9, 47

辰 **52년생**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64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76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비로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88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이니 끊임없는 노력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00, 50

巳 **53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65년생** 무방하다. **77년생** 부지런한 이가 선점하게 되는 법이니 방심하지 말고 진력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89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하다. 행운의 숫자 : 52, 99

午 **42년생**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54년생** 반갑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66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터지리라. **78년생**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90년생** 변화를 꾀한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57

未 **43년생** 지나친 기교가 불편함을 야기할 수다. **55년생** 궁극적으로 합치한다. **67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9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91년생**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10, 69

申 **44년생**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줄 알아야 완성될 것이다. **56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68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처리함이 맞다. **80년생**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 오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0, 44

酉 **45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57년생** 객관적이지 못해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은 약하다. **69년생** 귀인으로부터 절실했던 당해사항에 대해 은혜를 입게 된다. **81년생** 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따로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6, 59

戌 **46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58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70년생** 기묘하게 연계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2년생** 종합적으로 살피되 결정적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11, 32

亥 **47년생** 독창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것이 제일 무난하다. **59년생** 막상 임하고 보면 별 것이 아님을 알리라. **71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83년생**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0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